

농촌마을의 비공식적 노인돌봄에 대한 사례연구

윤순덕·채혜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Case Study on Informal Care for Rural Elderly by Neighbors in Korea

Yoon, Soon Duck · Chae Hye Seon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Korea

ABSTRACT

Previous research on elderly care in rural areas has focused on inter-generational support, ignoring the possibility of elderly care among community members in the rural areas of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roles and potentials of community-based elderly care in rural areas where nearby family or formal services are unavailable. For this purpos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elderly in three Korean rural villages using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s. Each village was studied as a separate case study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elderly in each village were conducted. All interviews were tape-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for the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Reflective Qualitative Analytic Technique. Results showed that rural elderly in all three villages had lunch, talked, and played together; almost everyday in the winter. However, the nature of care among rural elderly vari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community (the traditional rural, the rural mixed with the urban, and the neighboring rural with the urban). Specifically, the use of mutual aids (providing food, repairing housing, and checking personal safety by telephone or visit, etc.) was most consistent at the traditional rural village. Because both the rural village mixed with the urban and the neighboring rural village with urban have better access to many aids and programs from formal institutions, mutual aids among community members decreased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rural village. However, regular group activities such as sports, dancing or debate help to provide pleasure and integrate the commun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mmunity relationships as a substitution for social support provide by family or formal services can be utilized in rural areas.

Key words: informal care, rural elderly, community care, social support

I. 문제제기

우리나라 농촌은 도시에 비해 급격히 고령화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조건에 의한 접근성과 효율성 등의 문제로 복지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공적인 영역의 복지 서비스 혜택이 농촌마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공적 부양서비스의 이용이 어렵거나 활용 가능한 공적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자녀와 같은 사적 지원망에 의존하기가 쉽다고 알려져 왔다 (Kroust 1994; 김은숙 1995).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가족구조가 이미 가족원에 의한 노인부양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농촌노인의 부양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자가 자녀라는 인식은 남아 있지만, 농촌지역 노인가구의 무려 76.7%가 노인단독가구이며(통계청 2006) 비동거 자녀와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의한 일상적인 부양은 더 이상 기능하기가 어려워졌다.

자녀로부터의 일상적인 지원을 공적인 영역에서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농촌노인들은 어떻게 일상적인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일까? 변화순(1993)은 사회와 가족이 농촌노인부양기능에 한계가 있을 경우 이웃, 친척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웃과 혹은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들(윤희 1994; 이형실 1999; 박승희 2000)도 같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친구나 이웃은 농촌노인에게 일상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가하면, 최근 이루어진 한경혜와 김주현(2005), 한경혜 등(2005)의 연구는 농촌마을에 오랜 동안 형성되어온 이웃간의 사회적 관계망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상부상조의 공동체문화가 농촌노인의 독립적인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밝혔다.

농촌은 아직까지 집성촌이 많고 집성촌이 아

닌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30년 이상 오랫동안 한 마을에서 함께 생활해 온 특성상, 친족과 이웃들은 서로의 생애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아 왔기 때문에 서로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서로 왕래하는 등 도시와는 다른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전통적인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측면도 있지만, 급격한 도시화의 영향을 받아 농촌과 도시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공동체적 문화가 사라지는 등 사회문화적 변화의 가능성 역시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공동체적 문화와 이웃간의 유대관계가 노인들의 삶에 어떤 형태로 현재 남아있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주로 지금까지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복지인프라의 부족 등 노인들의 삶의 질이나 복지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농촌마을 주민들간의 유대관계와 공동체적 특성이 노인부양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된 바가 없다. 이웃, 친척 등을 포함한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소수의 연구들(서병숙·김유정 1993; 이형실 1999)도 주로 개인단위의 자원으로서 규모, 빈도, 지원수준 등 양적인 측면에서만 파악되어 마을단위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노인 돌봄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해줄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경혜 등(2005)은 농촌이라는 지역사회가 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생태적 특성과 지역거주민들의 오랜 상호작용의 역사가 복합적으로 얽혀 생성된 결과물로, 이러한 복합적인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 개인 중심의 접근을 넘어 노인들의 생활터전인 '마을'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탐색해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런가하면, 농촌은 노인의 절대적인 수는 적은 반면, 이들이 넓은 지역에 산포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복지체계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의 보완대책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하여 농촌노인들의 주요 생활권역인 마을단위의 노인부양체계 개발이 가능한가에 대한 마을단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또한 계량적 실증조사 자료에 의한 마을 연구들은 농촌지역의 현실적인 모습이 증발되어 버리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농촌마을 주민들의 삶에 대한 심층적 자료수집과 탐색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한경혜·김주현 2005; 한경혜 등 2005)고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 주민에 의한 노인부양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지원망 연구에서 주로 개인단위로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농촌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 상호간에 또는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돌봄의 형태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촌지역을 동과 면지역이 혼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대도시와의 근접성을 기준으로 전통형, 도시근교형, 도농복합형 농촌으로 나눈 후 각 유형에 해당하는 한개 마을씩을 사례연구마을로 선정하였다. 마을유형별로 이웃이나 공동체에 의한 노인돌봄의 모습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함으로써 농촌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돌봄의 양상과 변화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이웃주민에 의한 비공식적 노인돌봄은 주로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연구들에서 사적 지원망의 한 형태로 가족, 친척과 비교되어 다루어졌고 독립적인 연구영역으로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수행된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연구들조차도 주로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최정아·서병숙 1992; 김정석·김익기 2000),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도 성인자녀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대관계에 초점을 맞추거나(한경혜 1996; 한경혜·홍진국 2000; 이민아 2000; 이형실 2003) 이웃에 의한 사회적 지원이나 부양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다루어져(서병숙·김유정 1993; 이형실 1999; 배진희 2004)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

국내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노인이 친척이나 이웃과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지원을 교환하고 있으며 정서적 지원의 교환이 경제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보다 더 빈번한 것으로 보고한다(Seeman & Berkman 1988).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 모두 친척과 이웃보다는 자녀로부터 받는 경우가 더 지배적이라는 데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농촌에서 여전히 자녀에 의한 지원이 이웃에 의한 지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이웃에 대하여 각각 동일한 질문을 받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이웃에 의한 지원보다 높게 응답할 가능성에 연유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승희(2000)는 농촌의 많은 노인들이 이웃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이웃으로부터 생계 재화와 용역에 대한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받는 등 이웃간의 연대가 농촌노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국내 실증연구들(한경혜·김주현 2005; 한경혜 등 2005)에 따르면, 도시에 비해 농촌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의 오랜 유대관계망에 기초한 공동체문화가 아직 남아있고, 이러한 공동체적 특성이 노인들의 고립을 막고 일상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규탁(1990)은 대다수의 노인들이 친척보다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과 훨씬 더 교호적 또는 교환적 관계를 맺으며 그런대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웃이 제공하는 지원은 특히 노인들의 독립성과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며(한경혜 등 2005), 오랜 동안 형성된 이웃과의 유대감과 가까운 거리라는 지리적 근접성의 장점 때문에 이웃은 가족에 의한 보호나 공적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때 노인돌봄의 중요한 원천이자 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웃은 가족이나 친척에 비해 선택적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교환하기에 평등하고 지속적이며 안정된 교환관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인간관계라는 특성이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Antonucci & Jackson 1987).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단위로 접근하는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양적 중심의 연구에서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부녀회나 여성노인들이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담소, TV시청 등 공동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등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돌봄의 모습은 파악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사회적 지원망 연구에서는 주로 지원망의 크기나 빈도, 지원의 종류별 지원수준 등 구조화된 질문지로 양적인 측면에서만 분석되었기 때문에 이웃이나 마을공동체가 주는 도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자녀와는 어떻게 다른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즉 마을공동체적 문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돌봄 부분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농촌사회도 급격한 도시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 농촌마을의 도시화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지역특성에 따라 농촌사회내에서도 변화의 속도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삶의 모습이 남아있는가 하면 도시화된 삶의 모습도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공동체적 문화가 노인들의 삶에 어떤 형태로 남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농촌고령화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들이 인구크기를 근거로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왔기 때문에, 농촌 내 변화하는 모습과 다양성을 살펴볼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Krout(1994)는 인구밀도나 도시지역과의 근접성 등으로 농촌을 세분화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농촌이라고 불리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많은 다양성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유형을 3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농촌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에 의한 노인돌봄의 모습이 통상 농촌으로 불리는 동일한 행정구역의 읍면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시와의 근접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근접성과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돌봄의 행태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갈수록 도시화되는 농촌의 노인부양문제를 어떻게 접근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농촌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노인돌봄의 모습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질적인 사례연구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농촌지역을 행정구역상 동지역과 면지역이 혼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대도시와의 근접성을 기준으로 전통형 농촌, 도시근교형 농촌, 도농복합형 농촌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는 일정한 인구에 달하면 시로 승격시키는 도농 분리적 행정구역 조정방식이었으나, 도농분리형 지역개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과 재정효율을 도모하고자 1995년 시지역과 인근의 군지역을 통합하여 시지역으로 편제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상 '읍면'으로만 이루어진 군지역을 '전통형 농촌'으로 분류하고, 행정구역상 읍면동이 혼재되어 있는 도농복합시의 면지역이지만 수도권에 인접해 있느냐에 따라 '도시근교형 농촌'과 '도농복합형 농촌'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각 유형에 해당하는 시·군 선정에 위하여, 지리적 위치, 농업종사비율, 도농복합시 승격시기 등을 고려하였다. 전통형 농촌형은 농업종사비율이 다른 도에 비해 높은 전라도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군으로 장성군을, 도시근교형 농촌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며 최근 2001년에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화성시를, 그리고 도농복합형은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던 첫해인 1995년에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천안시를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다. 마을 선정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연구 취지와 마을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마을 선정을 의뢰하여 후보마을을 소개받았다. 소개받은 마을을 시군농업기술센터 생활지도사의 안내를 받아 방문한 후 소개받은 후보마을을 사례조사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전통형 농촌으로는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마을, 도시근교형 농촌으로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

마을, 도농복합형으로는 충남 천안시 중리마을이 선정되었다.

자료는 연구팀 3~4명이 마을 당 2~3회 방문을 통해 마을 전체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마을 이장(전남 장성, 경기 화성) 또는 노인회장(경기 화성, 충남 천안)을 주요 면접대상으로 하여 연구팀에 의한 일대일 또는 집단면접 조사로 수집되었으며 2006년 11월에 수행되었다. 마을대표는 마을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주민들의 노인돌봄 활동을 소상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녀회나 노인회 등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해당 마을에 대한 공식적인 인구통계자료나 유래 등 마을특성에 대한 자료는 마을이장의 협조와 일대일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간의 노인돌봄활동은 이장과 부녀회장 또는 노인회장에 대해 함께 질문하였다. 연구팀이 조사차 방문한다고 하여 마을주민들이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모여 있었고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을대표들을 대상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다. 면접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노인들이 끼어들어 추가 답변을 하기도 하고 대표가 응답하는 말에 맞장구를 치기도 하였다. 모든 면접자료는 조사대상자의 양해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을 필사본으로 만들어 자료화하였다. 또한 마을 노인들이 함께 활동하고 답소하는 모습, 면접과정에서 옆에서 곁들여 이야기하시는 내용 등에 대한 관찰을 통해 마을 노인들이 이웃간에 서로 돌봐주는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조사지역의 일반적 특성

1) 전통형 농촌마을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마을은 가까이에 산이 있고 마을을 감싸 안은 듯 꽤 폭이 넓은 하천이 흐르며 집들은 용기종기 평지에 자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장성읍에서 8km 떨어져 있고 군내버스가 하루 13회 운행하며 버스로는 20분, 택시로는 1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비교적 대중교통이 좋은 곳이다. 마을에는 총 57세대 132명이 살고 있는데 이중 남성이 59명,

여성이 73명이었다. 연령별로는 55세 미만이 43명으로 32.6%, 55~64세 36명(27.3%), 65세 이상 53명(40.2%)으로, 매우 고령화된 마을이다.

대부분의 가구는 농사를 지으나 영세농이며, 논농사와 사과농사를 주로 짓는다. 집 주변으로는 사과 과수원이, 마을 앞의 들에는 논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입구 하천변에는 마을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정자가 있고, 마을 안에도 정자나무와 쉼터가 있다. 마을 안에 들어서면 교육장소로 주로 활용되는 MS 홍보관이 들어서있고 마을 가장 안쪽에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필암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의 전통놀이로는 정월 대보름 마을 농악단의 농악놀이와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2) 도시근교형 농촌마을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마을은 약 400년 전에 형성된 마을로 남원 양가 집성촌이다. 해발 140m의 초록산 서쪽에 자리하여 경사진 형태로 집들이 용기종기 들어서 있다. 수원시에서 약 20km 떨어진 마을로 43번 국도에서도 마을입구까지 200m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한다. 마을의 총인구는 144명이고 43세대가 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71명, 여자 73명이고, 연령별로는 54세 이하가 93명(64.6%), 55~64세 23명(16.0%), 65세 이상 28명(19.4%)으로 3마을 중 가장 고령화율이 낮은 마을이었다.

대부분의 가구는 농사를 지으며 주로 벼와 고추를 재배한다. 이 마을은 2층으로 지어진 마을회관이 있고 1층에 경로당이 자리하고 있다. 2005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시범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이 사업으로 마을회관 안에 찜질방을 만들고 마을회관 바로 옆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노인일감으로 표고버섯을 공동으로 재배하고 있다.

3) 도농복합형 농촌마을

충청남도 천안시 중리마을은 천안역에서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마을에 위치하며, 1983년 천안시 풍세면에 속했다가 1995년 도동통합에 의해 천안시에 편입되었다. 32번 국도에서 마을 입

구까지 1.2km 들어가야 한다. 마을회관 바로 앞까지 시내버스가 오지만, 하루에 4번 밖에 운행하지 않아 불편한 편이다. 자식이 있는 어르신은 대중교통 대신 자식의 자가용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였다. 이 마을 가구수는 총 60세대이지만, 농가는 38세대 뿐, 비농가가 22세대를 이루고 있다. 마을 총인구는 164명이고 이 중 남자가 75명, 여자가 89명을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55세 미만이 64명(39%), 55~64세 49명(30%), 65세 이상 51명(31%)을 차지하여 고령화된 마을이라 할 수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최근에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노인 1명 뿐으로, 대부분 배우자와 살거나 자식과 함께 사는 가구이다.

예전에는 천수답이 많아 살기가 어려웠으나 농산물 직거래 판매망이 유리해지면서 최근에는 근교농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현재는 무공해 작물인 고구마를 경지면적 30%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IV. 연구결과

1. 전통적 농촌형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이웃사촌’이라는 말처럼, 이웃끼리 서로 어려울 때 돕는 풍습이 노인인구비율이 40%를 넘는 필암리에서는 노인들을 돌봐주는 문화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 가까이 살기 때문에, 매일 같이 오고가며 이웃끼리 서로 마주치는 것 자체가 안부 확인이었다. 마을 어르신들끼리는 ○○할머니가 몇째 딸네 집에 가서 언제 오는 것까지 알 정도로 서로의 사정을 늘 공유하는 가까운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못되지만, 매일 보던 노인이 안보이면 전화도 하고 찾아가보기도 한다. 아프거나 하면, 입소문을 통해 동네사람들에게 바로 알리고 문병을 가고 위중하면 병원에도 함께 간다.

“다른 거보다 동네 주민들을 모시고 근처에서 이웃끼리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좋다. 우리 동네에서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이 서로 어려

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요, 이웃간에. 옛날 말이 이웃사촌이라고 안해요? 실은 부모형제보다 이웃이 가깝고 어려울 때는 가깝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80이상 자신분들은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노인 밤새 안녕하시냐고? 그리고 이웃들은 매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양반 안 나오면 ‘어찌 안나오까?’ 이야기하고, 가서 모셔 오기도 하고, 전화로 물어보고. 그래서 그 양반 건강상태 체크는 못하지만 많은 상황을 파악한다는 거죠.”(마을이장, 60세, 남성)

“그분이 어디가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금방 하루 정도에 다 알려가지고 57호 가정 이 하루에 다 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문병가고 뭐 사가지고 가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못되지만, 그 양반이 그래도 같은 동네에서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중략) 같이 평상시에 놀다가도 시골에서는 집 단적으로 살기 때문에,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오면 이웃사람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죠. 그 양반이 어찌다 아프셨냐하고 들여다본단 말입니다.”

“경미하게 감기 걸렸다하면, 이웃사람들이 죽을 썬 갖고 갖다 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 하면, 빨리 조치를 하죠. 연락도 해주고, 사실은 이웃이 사촌보다 가까워요. 왜 그냐, 내가 불편했을 때 몸 아파서 활동 못할 때 이웃사람들이 제일 먼저 발견해가지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죽도 썬주고 그래요.”(마을이장, 60세, 남성)

이곳 시골 인심은 그랬다. 특히 겨울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보일러나 창문 같은 집주변을 살펴주고, 김장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었다. 자식이 있어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서 최소한 먹고 사시는데 어려움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챙겨 드리고 있었다.

“특히 겨울이 닥치면 자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주변 정리도 잘 해야 될 것이고, 김장때 김장도 돌봐줘야 할 것이고. 80넘어서 몸이 불편해서 김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아 야는 하고, 그분들이 농사도 못 짓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돕고 살아서 해야죠.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경비는 어디서 부조 받은 것도 아니고 시골은 거의 농사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씩 갖다 드려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으니까 한 쌀 열 가마 되요. 김장은 시골에 참 좋은 풍습이 있어요. 담그면 이웃에 맛 좀 봐라 갖다 주고 그래요.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 어렵다 그러면 다 돌보고 있어요.”

“거동 못하시는 분들하고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중략) 시골에서는 또 자식이 있어도 다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혼자 계시는 양반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수급자인 분들도 있고 아님 분들도 있고. 아들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던가 하면 그런 분들은 대상자가 아니죠. 참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되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봉양을 해야 하는데, 그게 못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 마을은 마을사람 남녀노소가 이웃노인 돌봄에 참여하고 있었다. 여성은 주로 방문해서 설거지, 집안청소, 반찬이나 음식 제공 등 집안일을 하거나 말벗으로 도움을 드리는가 하면, 남성은 주택수리, 공과금 내주기, 차량이동, 텃밭 손질 등의 도움을 주고 있었다.

“부녀회는 죽을 썰서 갖다 준다거나, 남자분들이 어떻게 음식을 하겠습니까? 거의 다 부녀회에서 하죠. 사실 다 여자라도 남자 혼자 사는 분집에도 가서 ‘어떻게 사시오?’

들어가서 보고, 방도 치워주고,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걸레 같은 것도 빨아주고. (중략) 그 외에 전구 가는 것도 혼자 못해요. 연탄 때는 분들은 연탄가스 위험하지 않소?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연탄도 갈아주고 전구도 다 갈아주고. 전기 차단기 같은 것도 잘 나가요. 그것도 같이 갈아주고 그런 소소한 것들은 동네에서 다 해줘요.”

“평소에 나이가 비슷해도 건강한 분들이 또 있어. 그 분들이 찾아가서 목욕탕에 어떻게 데리고 가서 하고. 목욕비는 각자 내요. 대체적으로 시골 사람은 돈을 안써. 그래도 다 목욕비 정도는 있어요.”

이웃지간에도 시골에서는 아우동생하며 가족처럼 산다. 때문에 도움을 받더라도,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근사한 서비스 보다 이들에게서 듣는 한 마디의 위로와 방문이 편하고 거부감이 없다고 하였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봉사하는 기쁜 마음으로 한다. 이런 윗세대의 돌봄의 문화가 아래 세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가서 이야기만 해주고, 어디가 편찮은지 묻고 위로해주면 그런 말들을 고맙게 생각해요. 사람이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놀다 가면 잘한 거 아니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남에게 봉사 해야겠다 그런 맘을 갖고 하는 거라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그 밑에 후손들이 윗사람들 따라서 다 실천합니다.”

겨울철 필암리에서는 거동이 힘든 노인 몇 분을 제외하고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노인이면, 무조건 마을회관에 나온다. 노인들이 겨울철에는 춥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를 이웃에서도 눈여겨보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바로 마을회관이 겨우내 노인들이 서로 보고 안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보일러를 틀어 따뜻하기도 하지만, 북적거리며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왜 그냐 자기 집에서 혼자 있으면 뭐해요, 아무래도 집이 한옥이라 춥지 않습니까? 거기(마을회관에) 나오면 따뜻하고 이야기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회관에다 기름을 하루 종일 때요, 뜨끈뜨끈하게. 또 작년에 농사를 많이 지은 분이 쥐갯고 쌀 40가마를 모았어요. 전기밥솥을 주는 사람도 있고 김치도 다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쟁여 났어요. 당번들이 또 자기가 해서 많이 가져오고요. 그래서 하루에 점심을 매일 50명 이상이 먹어요. 그때 거동이 힘든 몇 분 빼고는 모든 노인들이 다 나오는 거죠.”

전통형 농촌의 이곳 마을은 가족이 해주지 못하는 돌봄의 대부분을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해결하고 있었다. 농촌진흥청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방문이 잦기는 했으나 이 외 공적 부양서비스의 손길이나 마을 외 복지기관의 프로그램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들 결과는 공적 복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자생적인 노인돌봄이 활발한 것으로 보여지나,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돌봄은 기초적인 것이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등 공적 복지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2. 도시근교 농촌형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마을은 서울이나 수원 등 수도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곳 노인들은 자식과 같이 살고 있거나 부부내외만 살더라도 수도권에 대부분 살고 있는 자식들과의 왕래가 빈번하였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도 근처에 사는 자식이 드나들며 힘든 농사일을 거들어 준다. 그리고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을 집

집마다 나가 살고 있는 자손들이 상조회를 꾸려서, 서로 연락해서 찾아온다. 그래서인지 마을에서 특별히 돌봐드려야 할 만한 노인이 비교적 없어 보였다.

“노인네들 늙다 보니까, 정신도 그렇고, 자손들이 농사지을 때 와서 해줘요. (중략) 자손들이 1시간이면 다 오지. 남자가 혼자 사는 사람은 없는데, 여기도 아주머니들이 (혼자 살지). 그래도 아들들이 여기 근처에 수원이고, 근처에 많아서 아들이 맨 날 드나드는 거여. 농사지을 때 매일 해주고 가고.” (노인회장, 남성, 72세)

양씨 집성촌이다 보니, 노인들 거의 대부분이 서로 일가친척이었다. 설사 혼자 된 할머니가 아프더라도, 이웃노인의 자식인 젊은 사람에게 어렵지 않게 부탁할 수 있고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편한 관계망을 가졌다.

“혼자 사시는 분들, 가족들은 나가서 다들 돈 벌고 잘 살면서도, 막상은 혼자 사니까. (중략) 여름에 땀 많이 흘려서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안간데. 그러더니 그 다음날에는 전화 와서 ‘△△아빠 병원에 가야겠어요. 나 좀 병원에 태워다 줘.’ 그러면 태워다 드리고 그랬죠. 우리 마을은 씨족사회여서,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부모, 자식처럼. 일가친척들이니까.”(이장, 남성, 58세)

이 마을엔 잘 다져진 게이트볼장이 마을회관 옆에 있고, 오전에는 남자, 오후에는 여자가 연중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찜질방 시설이 있다. 모두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에 의해 2006년에 만들어졌다. 이곳 노인들은 농사일에 아무리 바빠도 이웃노인들과 어울려 게이트볼을 치고, 찜질방에서 목욕을 즐기며 생활하고 있었다. 아프거나 농사일이 바쁠 때는 가까이 사는 자식들이 들여다보고 돌봐주지만, 평상시 사람들과 어울리며 여가생활을 즐기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

록 돌봐주는 효도역할은 마을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찜질방이 하고 있었다.

“여기 사는 노인네들 밭일, 농사일 다 해요. 그래도 게이트볼 하고 다해요. (중략) 농사지으랴, 화성시 게이트볼대회 나가랴, 여덟 번 대회가 있어요. 올해는 우리 남부대회로 불려다가 손님 치뤘어. 통돼지 잡고. (중략) 게이트볼 치시느라 담배도 많이 끊으셨어요. 담배, 회관 안에서 절대 못 피요. 남자방 여자방 따로 있는데도, 절대 못 피요. 어디서 피다 들키면 야단맞아요.”

겨울이면 마을노인들은 누가 부르지 않아도 매일같이 마을회관으로 모인다. 다들 해서 먹을 음식 하나 들고 말이다. 기름보일러 틀어놓은 따뜻한 마을회관에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TV도 보고,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다가 잠들 무렵이 되어서야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마을회관이 노인들의 놀이터였다.

“대개 (마을)회관에서 쌀도 서로 갖다가, 거기서 김치도 해먹고, 말년 모여서 재미나게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게이트볼도 치고, 화투 이런 것도. 노인네들이 거기 죄다, 놀이기구 다 있어요. 없는 게 없고 그래서. 찜질방도 있고. 아주 거기서 생활을 해요. 돈벌고 그럴 때는 또 나가서 돈 버시고. 늘 그렇게 거기서 아주 재미나게”

“농한기 때는 거의 여기(마을회관에) 와서 지내고 계세요. 먹고 싶은 거 찹쌀가루랑 자기 집에서 해갓고 잡수시고 만두도 해 잡수시고, 쌀은 한말 두말 가지고 오니까. 콩도 그렇고. 그렇게 맛있는 거 해 잡수시고 그래요.”

도시근교형 농촌마을은 전통형의 농촌마을과 같이 겨울철 마을주민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문화는 남아 있으나, 노인인구비율이 높지 않은 데다 노인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방문할 수

있는 자식이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노인을 돌봐드리는 마을단위의 활동은 면접과정에서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결과는 마을 주민이나 건강한 노인이 혼자 된 노인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을 하고, 집안청소를 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프시면 몸시중을 드는 것이 소극적 의미의 노인돌봄이라면, 대양마을에서와 같이 노인들이 서로 여가생활을 함께 즐기고, 지역사회에 잘 통합이 되도록 하는 활동이 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적극적 의미의 노인돌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3. 도농복합농촌형 : 충남 천안시 중리

충남 천안시 중리는 천안역에서 약 3km 떨어진 마을로 교통, 문화, 의료 등의 복지혜택을 받기에 좋은 지리적 조건에 있었다. 그러나 거리상은 가깝지만 대중교통은 버스가 하루 4번 밖에 들어오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다고 한다. 마을 전체 인구 164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69명이고, 혼자된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있지만 대부분 노부모, 자식, 형제 등과 함께 살고 있어 독거노인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노인이 혼자 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살기 바빠 마을주민들이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안부를 확인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고 관심도 없어 보였다.

“혼자 됐다고 해도... 가족들 부모님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독거노인은 아니지. 독거노인 한 분 계셨는데 할머니 건강이 안좋아져 가지고 10월엔가 돌아가셨으니까...” (노인회장, 70세, 남성)

“참 그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는 뭐 힘든 걸로 봐야지. 각자 할일도 바쁘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 날 안 나오면 어디 아픈가 보다 하고 기침만 하는 거지 뭐. 가서 이렇게 확인은 못할 입장인니까요. 그리고 그 분이 폐병이라고 해야 하나 결핵, 그러니까 꺼리는 마음도 생길 거고”

마을주민끼리 오거가거나 마을 단체에서 제공

하는 물질적 원조는 드물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주는 쌀, 농협주부대학에서 주는 김장김치 정도였다. 그리고 천안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천안시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마을청소를 하고 월 20만원 정도의 소득을 받는 노인도 있었다.

“그게... 물질적인 건 행정에서는 좀 도와줘요. 쌀도 갖다 주고 가을되면 김치도 갖다 주고. 여기가 중동이니까 중동사무소에서 해주구요. 농협에서도 농협주부대학 그분들이 김장하면 김장도 갖다 주고요. 그렇게 행정에서 해주는 거 말고 마을 주민들 간에 좀 도와주고 들여다보고 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중략) 복지관에서 2년 동안 여기 부락 안에서 청소를 시키고 여기 노인분들에게 한 달에 수고비로 해갖고 조금 20만원 씩... 크게 보탬은 안 되도 버스비 정도 보탬이 되지.”

그런가하면,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찾아오는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다. 2003년부터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은빛교실을 주 1회씩 2년간 마을회관에서 24명이 참여하여 졸업하였고 그런 활동으로 2004년도 12월에는 신바람 은빛교실 우수 경노당상을 천안시장과 노인종합복지관장으로부터 받고 초록, 은빛페스티벌에서도 은빛상을 받는 등 마을의 여성 노인회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성노인들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마을회관에 모여 천안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온 강사 2명으로부터 율동을 배운다.

“천안복지관에서 매월 한 번 월요일에 나와 갖고 율동도 하고. (중략) 호응도 좋아요”

또한 농촌진흥청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의 지원을 받아 노인소득사업으로 논밭경작을 노인회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논밭을 임대받아 남자노인이 주가 되어 쌀농사도 짓고 콩, 고구마 등을 심어 판매한 뒤, 노인 1인당 나눠 갖기도 하고

마을회관에 쌀을 기증하기도 한다. 찜질방, 샤워시설, 운동기구 등도 갖춰져 노인들의 공동생활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곳 도농복합형 농촌인 천안시 중리는 전통형 농촌마을이나 도시근교형 농촌마을에 비해 마을주민들간에 오고가는 비공식적 노인원조 보다는 시(市)의 공적 복지혜택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 주민들 간에 오고가는 사적 노인돌봄의 형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도 젊은 사람의 일자리가 천안시에 있음으로 인해 자녀들의 대부분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 사이에 자녀를 대신하여 돌봐주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을주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노인돌봄이 농촌유형이나 도시화된 정도에 의해 나타난 차이라기 보다는 농촌유형에 따라 노인들과 자식과의 거주거리가 상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농촌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겨울철 공동생활은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농한기인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 정도는 마을회관에 모여 각자 집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점심을 나누어 먹고 평상시에도 한 달에 한 번은 회관에서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는 문화가 남아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마을 주민들 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노인부양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지원망 연구에서 주로 개인단위로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농촌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 상호간에 또는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돌봄의 형태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촌지역을 동읍면의 혼재여부와 대도시와의 근접성 정도에 따라 전통형, 도시근교형, 도농복합형 농촌으로 나눈 후 각 유형에 해당하는 1마을씩을 사례연구마을로 선정하였다. 마을유형별로 이웃이나 공동체에 의한 노인돌봄의 모습에 있어 유사점과 차이점,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농

촌노인 부양의 대안책 마련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자료는 2006년 11월, 마을내의 활동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이장 또는 노인회장을 대상으로 연구자에 의한 직접면접조사와 이들의 응답에 대해 경로당에 모여 있는 노인들의 반응에 대한 관찰을 통해 수집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전통형 농촌마을 사례에서는 가족이 해주지 못하는 돌봄의 대부분을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해결하고 있었다. 매일 오고가며 보는 만남이 안부확인이고 겨울철에는 집주변을 살펴보고 고쳐주거나 김장이나 쌀 등 먹을거리를 챙겨드리는 등 노인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남녀주민 모두가 도움을 주고 있었다. 반면, 농촌진흥청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지원 외에 다른 공적 부양서비스의 손길이나 마을 외 복지기관의 프로그램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들 결과는 공적 복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자생적인 노인돌봄이 활발한 것으로 보여지나,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돌봄은 기초적인 것이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등 공적 복지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도시근교형 농촌마을 사례에서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이곳 노인들은 자식과 같이 살고 있거나 부부내외만 살더라도 근거리에 살고 있는 자식들과의 왕래가 빈번했다. 오히려 이웃노인을 돌봐드리는 마을단위의 활동을 면접과정에서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마을노인들이 함께 모여 게이트볼을 즐긴다거나 마을회관의 찜질방을 주기적으로 이용하여 담소를 나누는 등 여가생활의 공유를 통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을주민이 혼자 된 노인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을 하고, 집안청소를 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프면 수발하는 것이 소극적 의미의 노인돌봄이라면, 대양마을에서와 같이 노인들이 서로 여가생활을 함께 즐기고, 지역사회에 잘 통합이 되도록 하는 활동이 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적극적 의미의 노인돌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도농복합형 농촌마을 사례에서는 전통적

농촌형이나 도시근교 농촌형에 비해 혼자 사는 노인이나 거동불편노인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전통형이나 도시근교형 농촌마을에 비해 마을 주민들간에 오고가는 비공식적 노인원조 보다는 시(市)의 공적 복지혜택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다. 마을 주민에 의한 비공식적 노인돌봄의 형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자녀들의 대부분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 사이에 자녀를 대신하여 돌봐주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을주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노인돌봄이 농촌유형이나 도시화된 정도에 의해 나타난 차이이기 보다는 농촌유형에 따라 노인들과 자식과의 거주거리가 상이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농촌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겨울철 공동생활은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례마을 3곳 모두 공통적으로 공동의 여가생활, 겨울철이면 함께 경로당에 모여 담소를 즐기고 점심식사 등을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적 문화는 남아 있었다. 거동 가능한 노인이면 모두 마을회관으로 모인다. 사람의 온기가 있고 보일러 켜진 따뜻한 마을회관에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TV도 보고,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다가 잠들 무렵이 되어서야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겨울엔 춥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기 쉬워, 노인들이 잘 지내는지 눈여겨보지 않으면 파악이 어렵는데, 마을회관이 노인들의 놀이터이자 겨울철 안부를 확인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촌사회가 점차 도시화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지만, 전통형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들간의 안부확인, 위급한 상황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리는 등의 상호 돌봐주는 활동들은 멀리 있는 자식과 부족한 공적 부양서비스를 대신하여 체계적인 돌봄 문화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일찍이 이러한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상부상조 정신을 살려 자발적인 노인도우미제도, 만남네트워킹사업, 노인지킴이 활동 등 주민 상호간 노인돌봄체계를 지역주민들의 자체적 노력으로 정비

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상부상조 정신에 바탕을 둔 농촌마을 공동체 중심의 노인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는 복지사각지대인 농촌을 복지마을로 탈바꿈하고 새로운 노인부양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의 열악한 노인부양체계를 주민들에 의한 돌봄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등 공적 복지기관과의 연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마을주민에 의한 사적 부양 뿐 만 아니라 공적 부양체계가 마을단위에서 조화를 이룰 때 농촌마을 주민들의 노인부양 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노인들 또한 자신이 한 평생 살아온 마을을 떠나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농촌유형을 세분화하여, 농촌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에 의한 노인돌봄의 모습이 통상 농촌으로 불리는 동일한 행정구역의 읍면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시와의 근접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근접성과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돌봄의 행태는 무엇인지를 마을 단위의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장이나 노인회장 등 마을대표자를 중심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노인의 관점에서 마을주민들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활동이 무엇인지, 돌봐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지를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참고문헌

서병숙·김유정(1992)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80-92.
 김은숙(1995) 농촌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망 이용실태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석·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박승희(2000) 농촌노인들의 욕구충족과 욕구생성의 실태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사회학 34(4), 1007-1036.
 배진희(2004)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 자녀와 이웃지원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197-216.
 변화순(1993) 한국농촌가족의 구조와 기능변화. 농촌사회 3, 127-155.
 성규탁(1990) 한국노인의 가족중심적 사회부조망. 한국노년학 10, 162-181.
 윤 회(1994) 한국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으로서 형제 및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민아(2000) 우리나라 노인의 세대간 상호지원과 거주형태. 한국노년학 20(3), 129-142.
 이형실(1999) 농촌 부부가구노인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109-120
 이형실(2003) 농촌노인의 세대간 사회적 지원 교환과 생활만족: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4), 57-69
 최정아·서병숙(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65-78.
 통계청(2006) 2005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고령자-. 통계청.
 한경혜(1996) 농촌 단독가구노인의 자녀관계. 한국노년학 16(2), 21-38.
 한경혜·김주현(2005) 농촌마을의 환경특성과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1), 73-88.
 한경혜·김주현·강혜원(2005)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마을의 특성과 노인들의 상호작용: 강원도지역 3개 마을 사례연구. 농촌사회 15(2), 85-131.
 한경혜·홍진국(2000) 세대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12(2), 55-80.
 Antonucci TC, Jackson JS(1987)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efficacy, and Health: A Life Course perspective. Carstensen LL & Edelman BA(Eds.), Handbook of Clinical Gerontology. New York: Pergamon Press.
 Krout JA(1994) Providing Community-based Services to the Rural Elderly. SAGE publications, Inc. SAGE publications Inc.
 Seeman TE & Berkman LF(1988)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ocial Support in the Elderly: who provides support? Social Science & Medicine 26(7), 737-749.